

## 「H2O 센터」,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토연구원장상 수상

- 방치된 고추박물관의 혁신적 변신,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 모델로 인정받아 -

한국농어촌공사는 충청남도 청양군에 조성한 「H2O(Human Healing Organization)센터」가 '2024년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빈 건축물 등을 활용한 창의 공간을 평가하는 특별부문에서 국토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품격 있는 국토, 아름다운 경관’을 슬로건으로, 국토와 도시 공간의 경관 디자인 향상을 이룬 창의적 사례를 평가하여 시상하는 대회로, 올해 16회를 맞이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공사는 7년간 지속된 적자로 방치되었던 고추박물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인재 양성 및 공동체 조직화(Human), 사회적경제 프로세스 구축(Healing),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력 거점 조성(Organization) 등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농촌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로 「H2O센터」를 조성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H2O센터」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작한 이래, 청양군의 자립적 성장을 위해 청년 스타트업 지원, 지역주민 중심의 액션그룹 발굴·육성, 특화단지 조성 등 지역사회의 경제 주체를 키우고, 지역 특색을 살린 브랜드를 구현하면서 지역 활력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사는 청양군과 협력하여 센터가 조성된 고추문화마을에 식음료, 숙박, 체험시설 등을 집약한 공간 브랜딩을 통해 청양군의 여러 공동체가 교류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 계획이다.

이병호 사장은 “농촌 공간을 활력이 넘치는 기회의 장으로 변화시키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          |     |     |                    |
|-------|----------|-----|-----|--------------------|
| 담당 부서 | 농촌공간계획처  | 책임자 | 부 장 | 최찬원 (061-338-5441) |
|       | 농촌공간디자인부 | 담당자 | 대 리 | 신이철 (061-338-5443) |

## 참고

## 청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H2O센터'

**대상지 위치**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묵동길 14

**대상지 면적** 대지면적 6,173㎡, 건축면적 1,136.79㎡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플랫폼, H2O 청양

**H**  
Human

### 인재 양성 및 공동체 조직화

- H2O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공동체 조직화
- 신활력플러스 사업단 역량강화, 지역활동가 양성 등

**H**  
Healing

### 사회적경제 프로세스 구축

- 액션그룹 성장학교 운영(씨앗, 열매학교 등)
- 행복동행 프로젝트 실시(동행공동체발굴, 인큐베이팅)

**O**  
Organization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활력거점 조성

- H2O 센터조성, H2O 비즈니스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신활력 사업단 운영 등 인적·물적 운영관리

**+**  
Plus

연계 사업을 통한 H2O 센터의 공간적, 기능적 기능 강화

청양군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연계실시

농도교류 거점조성, 경제 자립화 지원, 네트워크 구축

**H**UMAN **H**EALING **O**RGANIZATION